

자아실현의 철학적 기초

—Philosophical Basis of Self-realization—

양 창 삼*

◀목 차▶	
I. 머리 말	3. 자아실현은 행복의 실현이다
II. 자아현실의 개념정의	4. 자아실현은 사회적인 것이다
III. 자아현실의 전제	5. 자아현실은 잠재능력의 실현이다
IV. 자아현실의 철학적 논제들	V. 철학적 논제들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점들
1. 자아실현은 선의 실현이다	VI. 맺는 말
2. 자아현실은 덕의 실현이다	

I. 머리 말

이 글은 철학에서 자아실현을 어떻게 정의하며 그 속성들을 어떻게 보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조직 성원의 자아실현을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몇가지 점들을 끄집어 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아실현이 조직성원에 대한 동기부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주장은 특히 마슬로우(A. Maslow)를 통해서 부각되었으며, 나아가 맥그리거(D. McGregor), 아지리스(C. Argyris), 리커트(R. Likert), 허즈버그(F. Herzberg), 맥클랜드(D. McClelland)등 이른바 조직적 인간주의(organizational humanism)의 입장에 선 이론가들의 주저가 되어 왔다. 인간의 잠재능력을 새로이 인식하고 그들이 가진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면서 인간자원경영이 경영의 주된 흐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자아실현 인간관이 한때 조직과 경영의 한 시기를 풍미했고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 결코 축소되지 않고 있다.

조직 및 경영의 연구에서 자아실현에 관한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조직에서 자아실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심리학이나 사회심리학에 치중해 있고 철학적인 논의가 불비했다는 생각에서이다. 조직행동이 심리학이나 사회학의 이론들을 대폭

* 한양대학교 조직행동학과 교수

수용함으로써 학제성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철학적 논의를 제외하고 그것에 치중한다면 적어도 자아실현의 논제에 관한한 매우 폭이 좁고 깊이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철학적 논제에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학제성의 폭을 넓히는 일이며 자아실현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글은 앞으로 있을 여러 시도들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둔다.

이 글은 자아실현에 대한 개념정의, 그 전제, 그리고 자아실현의 철학적 논제들, 곧 그 속성을 살펴본 다음 이상의 전개를 통하여 조직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간추려 생각함으로써 결론을 맺는 순서를 가질 것이다.

II. 자아실현의 개념정의

자아실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에 앞서 깊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글이 철학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아실현에 대해서 여러모로 정의를 내렸던 심리학자들의 견해가 제외된다는 점이다.

철학에 있어서 자아실현은 대부분 윤리학이론의 한 영역으로서 취급되고 있으며 개인에 있어서 최고선이나 도덕적인 이상이 그가 가지고 태어난 여러 잠재능력, 특별한 재능, 또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진정한 본질, 곧 자아를 인식하고, 실현하며 성취하는데 있다고 주장하는 완성주의적 철학(a perfectionist philosophy)¹⁾이다. 자아실현의 이같은 개념정의를 놓고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 보기로 하자.

먼저 자아실현을 논하는 도덕 철학자들에 있어서 선이나 도덕은 목적 그 자체임을 알 수 있다. 플라토는 선을 우주의 궁극적인 본질이자 목적으로 간주했다. 선은 세계의 목적이며 그것의 형상(form)이자 힘이며 본질적인 존재로서의 신이다. 인간의 최고 이상이 되는 선은 선을 닮아 가려는 노력인 자기완성을 통하여 추구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선의 이데아는 이상적인 선이며 그것은 곧 신이다. 따라서 플라토에 있어서 선이나 선으로 표현되는 이데아는 현상세계의 궁극적 원인이자 모든 것이 추구해야 할 목적이 된다. 영국의 이상주의 사상가인 브러들리(Francis H. Bradley)는 도덕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목적이며 그 목적은 바로 자아실현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목적은 행위를 의미하고 행위는 자아실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우리 자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 옥스포드철학의 주류를 형성한 도덕철학 교수 그린(Thomas H. Green)은 인간 영혼의 내적 자질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 선이라고 정의한다. 그

1) Willam S. Sahakian, *Ethics: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Problems*(New York: Barnes & Noble Books, 1974), 48 쪽.

2) Francis Herbert Bradley, *Ethical Studies*, 제 2권(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27), 55~56 쪽.

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선이란 쾌락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그리고 지각있는 생활형식이다.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생활(*intrinsically desirable life*)은 쾌락과는 다른 것으로서 인간 영혼의 내적 능력(*capacities*)을 충분히 실현하는 것이자 인간의 재능(*vocation*)을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실현하는 것이다. 삶에 있어서 성취는 인간 자신의 “창조적인 에너지”(creative energy)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아실현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상태를 종국적인 것으로 그리고 완성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인간은 자기자각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³⁾ 도덕이나 선의 실현은 항상 중단이 없어야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면 자아란 무엇인가? 자아(*self*)는 어원적으로 따져볼 때 “같은”, “동일한” 성격이나 개인을 나타내는 앵글로 색슨어의 “*seolf*” 또는 “*sylf*”에서 유래된 말이다. 그러나 철학에 있어서 자아개념은 다분히 목적 지향적이다. 브레들리의 경우 자아는 전체적으로 도덕이라는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실현해야 하며 또 전체로서의 당신 자신을 실현해야 한다” 이때 자아란 하나의 전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를 발견할 때까지, 내용이 형상에 일치할 때까지, 그리고 그 내용이 실현될 때까지는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목적전체(a whole of ends)속에서 자아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자아실현(*practical self-realization*)이다.⁴⁾ 그에게 있어서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덕의 실현이다. 따라서 자아실현에서 추구하는 목적은 우리 스스로 그 도덕을 하나의 전체로서 추구하고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린은 선이란 개인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것으로 자아란 사회적 자아이며 자아는 공동선에서 그리고 사회적 가치속에서 가장 충분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아의 실현이란 인간 영혼의 내적 자아를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지만 그 인간 영혼은 개인주의 철학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⁵⁾ 자아의 실현을 최고의 선으로 본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도 자아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설명되고 있다.⁶⁾ 그가 도덕성이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것이라 말한 것은 바로 사회를 떠나서는 도덕적인 것이 실현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자 정치적인 동물이며 사회안에서만 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윤리적인 덕의 완성도 사회적인 환경속에서만 달성될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정치란 윤리의 한 측면이며 사회윤리와 집단적 인간들에 대한 실천적인 지식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자아란 실현이 요구되는 이상적인 자아로 개인은 자기의 잠재능력을 실현함으로써 도덕적인 완전성에 도달하고, 가장 완전한 퍼스낼리티를 개발하고 성취한다.

실현은 인간을 최대한으로 그리고 최선의 것으로 만드는 능력의 실현이다. 인간영혼의 내적 자질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을 선으로 정의한 그린은 실현이란 정신적인 활동으로서 개인적인

3) Thomas Hill Green, *Lectures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Obligation* (London: Longmans, Green, 1941), 20~21 쪽.

4) 윌슨(Bradley), 73 쪽.

5) Thomas Hill Green, *Prolegomena to Ethics*(Oxford: Clarendon Press, 1883), 339 쪽.

활동과 사회적인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자아의 실현은 모든 합리적 행위의 궁극적 목표이며 그것은 인간의 의식 내면에 점진적으로 재현되고 결국 외적으로 표출된다. 인간은 자아의 실현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욕망하며, 이 욕망의 성취는 진정한 행복이며 즐거움이다. 이때 즐거움은 쾌락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내면적인 신성함이자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다. 덕과 선은 인간의 자아 완성이며 이것이 최대한도로 그리고 최선의 상태로 실현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종합적으로 말해서 자아실현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는 덕과 선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목적론적이고 완성주의적임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잠재능력 발휘도 도덕적인 이상이나 최고선의 발현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자아실현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면서 특이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 철학자들이 사회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아실현의 행위는 결코 일회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님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자아실현이 윤리적 요소 뿐 아니라 실천지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 실현이 사회속에서 성취되고 그러한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Ⅲ. 자아실현의 전제

자아 실현은 자아 형성이라는 철학적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자아형성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자아실현을 이해함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인간이 자기를 이해함에 있어서 인정해야 할 여러가지 것들 가운데 중요한 것의 하나는 과연 인간이란 완전한가 하는 물음과 이에 대한 대답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이란 미리 형성되었다는 폐쇄회로를 택하기 보다는 자기의 삶을 그 자신의 원칙에 따라 이룩하려한다는 자아 형성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겔렌(Arnold Gehlen)의 표현에 따르면 “인간이란 자기의 삶을 이끌고 가는 존재”⁶⁾이다. 니이체(Friedrich Nietzsche)의 표현은 더욱 적극적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아직도 확정되지 못한 동물”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인간의 삶이 미리 정해진 궤도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바로 자기 자신을 창조해 나아가야 한다는 과제를 이미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간이 파일르트인가 아니면 로보트인가 하는 문제는 인간관에 대한 주요 논쟁이 되어 왔는데 자아 형성의 삶을 최대 과제로 삼을 경우 이것은 인간을 적극적인 존재, 파일르트로서의 인간을 부각시키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6) 양창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서울: 대영사, 1982), 65~66쪽.

7) Arnold Gehlen, *Der Mensch: Seine Natur und seine Stellung in der Welt*(Bonn/Frankfurt, 1962).

자아형성의 기본적 사고바탕에는 인간이란 스스로 만드는 존재라는 철학이 깔려있다. 인간은 존재자이고 자기의 인식에 따라 변화된다고 할 때 자기 스스로를 만든다는 관념은 그만큼 주체 자르서의 존재의식을 부각시키는 것이 된다. 자아형성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를 해명한다고 보는 리트(Theodor Litt)⁸⁾나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창조하며 그가 창조하려 하는 것까지도 규정한다고 보는 오르베가(José Ortega y Gasset)의 주장은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벨그송(Henri Bergson)도 “우리는 자기에 의한 자기의 창조를 할 뿐이다”고 말한다. 이것은 인간 자신이 인간의 형성자라는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인간이 그 문화의 창조자라는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어떤 틀에만 맞춰질 수 없는 능동적 존재임을 부각시킴으로서 전통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야 함을 일깨워 준다.

인간은 확정되지 않았고 완성된 것도 아니라는 사고속에는 인간이 자아형성을 함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가리킨다. 그 부분은 본래부터 정해진 일차원적 세계가 아니라 인간 자신이 자기의 창조력과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이차원의 세계⁹⁾이다. 그 영역은 인간 개개인에게 위임된 것이므로 개인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하면서(mutadis mutandis) 자기 자신을 형성하고 문화를 형성한다. 형편에 따른 필요한 변경은 인간이 처한, 그리고 각 개인이 당면한 상황에 적응하여 그것에 합당한 판단을 가지고 형성해야 하는 것이므로 결코 환경적인 요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자아 실현은 자아가 가지고 있는 이같은 영역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그리고 바람직한 쪽으로 자아를 형성하고 실현의 영역을 창조적으로 확대해 나아가는 수단이다.

IV. 자아실현의 철학적 논제들

자아실현을 철학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주제들은 사실상 자아실현의 속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 주제들이 사실상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아울러 지적한다.

1. 자아실현은 선의 실현이다

자아실현이 선의 실현이라는 점은 여러 철학자들의 공통된 주제이다. 선은 주로 좋은 것(good)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좋다”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신이

8) Theodor Litt, *Mensch und Welt*(München, 1961).

9) Michael Landmann, *Philosophische Anthropologie: Menschliche Selbstdeutung in Geschichte und Gegenwart* (Berlin: Walter de Gruyter & Co., 1969), 제 1장.

바라고 있는 어떤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진화의 과정과 일치되는 어떤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그 어느 한 쪽을 강조하면 각각은 심리학, 신학, 사회학의 관심 사항이 될 것이다.¹⁰⁾ 그러나 여러 철학자들의 경우 선의 접근방법이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플라토는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이며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주장한다. 신적인 이데아의 세계와 밀접하게 교류하는 영혼은 행복하며 가장 축복받은 상태이다. 그것은 최고선과의 친교 속에서 발전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한 사물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바로 그것이 어떤 종류의 선을 위한 것이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된다. 모든 자연의 활동은 그것이 이루어야 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도 예외는 아니다. 인간은 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과 능력, 그리고 예술적인 기능을 달성해야 하는 어떤 목적과 선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고 활동함으로써 자연에 의해 주어진 것을 최선의 상태로 갖춰 놓는 일은 곧 자기를 완성하고, 덕성을 개발하며, 선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아 완성(self-perfection)은 선한 생활의 달성이자 자아의 실현이다.

미국의 이상주의 철학자 블랜샤드(Brand Blanshard)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하여 행동하며 인간생활은 사실상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규정되고 있다.¹¹⁾ 성취와 만족은 비록 서로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해도 각각 선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다. 선이란 인간본성의 기본적인 요소인 충동과 욕구를 성취하는 어떤 것, 그리고 그것을 성취함으로써 만족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선이란 성취하고 만족을 얻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만약 성취와 만족 가운데 어느 한쪽이 결여되어 있다면 달성한 선도 불완전한 것이 된다. 즉 현재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대상이 어떤 주어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잠정적인 선일 수 밖에 없다.¹²⁾ 성취하고 만족하는 경험으로 정의되는 그의 선은 옳은 것을 정의하기 위한 기초를 부여한다. 옳은 것은 선이라는 관점에서 정의되며 선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옳은 것은 선택가능한 어떤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즉시 성취하고 만족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험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그의 선은 인간 정신이 가지고 있는 옳음의 본질과 가치의 경험, 그리고 그 실현의 필요와 충동, 성취와 만족에 관련된 이론임을 알 수 있다. 그리니 말한 바와 같이 진정한 선은 항구적인 자기 만족을 가져오며 그것은 완전한 자아실현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실현된 선은 자아에게 그만큼 성취감과 만족감을 준다. 다만 그 성취와 만족이 잠정적이고 불완전 할 경우 그 선은 언제나 정도의 문제가 된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만족을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선이 존재하며 우리가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블랜샤드에 따르면 우리에게 언제나 만족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선으로서의 절대적인 선은 없다. 진정한 선은 이상적인 것이다. 현실 세계는 순수하고 시간을 초월

10) A.C. Ewing, *Ethics*(London: English Universities Press, 1953), 11~12 쪽.

11) Brand Blanshard, *Reason and Goodness*(New York: Macmillan, 1961), 315 쪽.

12) 윗글, 343 쪽.

한 형상, 곧 이상의 모조품에 불과하다. 플라토에 따르면 선은 그 본성에 있어서 부단히 추구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달성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이상적인 선의 실현은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한 불완전한 감각기관의 방해때문에 완전하게 달성될 수는 없다. 다만 진리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서 선과 가까워 질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통하여 부단히 절대선, 최대의 선(The greatest good)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결국 인간은 어느 정도의 선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블랜샤드에 있어서 “좋은 행위”란 최대의 선을 산출할 수 있는 행위나 적어도 최대의 선에 못지 않은 선을 산출할 수 있는 선을 말한다. 좋은 행위자체를 실현함에 있어서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고 선의 정도도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어렸을 때 부터 목적을 추구하며 주어진 상황속에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의 흐름이다. 꾸준한 선의 추구가 당연한 논리적 근거를 갖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느 수준에서 거론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이다. 물론 최고선(summum bonum)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그 아래 수준의 선이 있다고 플라토는 말한다. 그 하위 수준은 지적인 것이며, 그 하위수준은 심미적인 것이며, 그 하위 수준은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것이다. 최고선은 신적인 이데아와 친밀하게 교류하는 행복한 상태이다. 그것은 인간이 가장 축복받은 상태이자 천국의 행복(celestial happiness)이 있는 수준이다. 그 아래의 것으로 지적인 추구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혜의 추구를 가리킨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자질이 있다면 그것은 지식을 갈망하는 지적인 능력, 곧 진리와 선에 대한 철학적인 탐구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참된 실재, 선, 혹은 신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진리와 서로 통한다는 것이다. 물질적인 대상물은 이상적인 참된 실재에 대한 불완전하고 그림자에 불과한 영상을 우리들에게 준다. 따라서 이상적인 실재와 이상적인 선의 실현상태인 가장 고상하고 진실한 생활은 인간의 이성적인 지혜를 통해서 달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플라토는 지혜를 다음에 언급될 수준의 것보다 훨씬 값있고 뛰어난 것이라고 믿고 있다.¹³⁾ 그 다음 아래 수준에 해당하는 것은 심미적인 것이다. 심미적 단계는 예술적 감각으로 아름다움을 모방함으로써 즐거움을 갖는다. 예술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의지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 아래 수준은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단계이다. 이 단계는 플라토에 있어서 가장 낮은 단계이다. 플라토는 육체와 감각을 인간이 취함에 따라 영혼의 지식은 망각의 심연으로 빠져든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는 감각적이고 불완전한 현상계에서 탈출하여 아름다움, 진리, 선과 더불어 머물 수 있는 절대자의 진정한 세계에 도달하여 진정한 생활을 발견하도록 촉구한다. 영혼은 감각적인 세계에서 벗어날 때, 지식과 덕을 통하여 그 자신을 감각적인 세계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시킬 때 우리는 그때 행복을 발견한다. 우리는 플라토를 통해서 각 개인에 따라 선의 수준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비록 선은 각 개인의 생활에서 불

13) Plato, *Philebus* 66.

완전하게 달성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각자가 가능한한 최대의 선을 실현하는 것이 자아실현의 생활임을 알 수 있다.

선의 실현이 자아실현이라는 논지는 매우 추상적인 성격을 띤다. 왜냐하면 선이 무엇이냐는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서 마저 아직도 확고하고 중국적인 답을 얻기 어렵고 대부분 관념에 그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뜻을 함께하고 그것의 실현이 자아의 실현이라고 믿고 있다. 그 선실현의 중국적 상태가 플라토에게 있어서는 이데아의 세계이다. 그러나 블랜샤드에게 있어서는 경험의 세계이다. 이 세계는 선을 성취함으로서 얻어지는 만족의 세계이며 경험은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그러므로 그의 선은 인간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만족에 있다. 이러한 두 견해가 궁극적 상태를 두고 상반되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사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완벽한 선의 실현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계속적으로 선의자를 통해 각자의 능력 수준에서 선을 최대한도로 넓혀 나가는 것이다. 선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각자의 바라는 바가 다르고 만족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선의 잠재능력과 그 실현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여 선을 실현할 수 밖에 없다. 선을 논의함에 있어서 빠뜨리지 않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선이란 사람을 재산이나 지위에 따라 차별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잠재능력에 따라 평가하는데 있다¹⁴⁾고 보는 것이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도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하여 “생산 의욕”(tends to produce)을 보일 때 그 자체가 바로 선의 실현이요 자아실현이 되는 것이다.

2. 자아실현은 덕의 실현이다.

자아실현이 덕의 실현이라는 논제는 대부분의 철학자들 사이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덕에 관한 정의도 학자들 마다 다르고 그것이 선과 어느 정도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하므로 먼저 어원에 따라 선(good)과 덕(virtue)을 따져 보기로 한다. 선은 영글로색슨어의 “gōd”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그 뜻은 어떤 목적을 위해 충분하고 만족된 상태, 상당한 정도, 진실된 것, 유용한 것, 신뢰할만한 성격, 친절, 심지어 “됨”(becoming)의 뜻까지 포용하고 있다. 덕은 불란서 고전어인 “vertu”에서 따온 것으로 그것은 본래 힘, 용기, 능력, 효력, 덕행을 뜻하는 라틴어의 “virtus”에서 온 것이다. 또한 라틴어에서 남자를 vir 로 나타내고, 여자를 virgo 로 나타내어 여기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덕은 인간의 도덕적 실행이나 행위를 나타낼 때, 그리고 선으로 생각되는 도덕적 자질이나 도덕적 우월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능동적인 개념이다. 덕이 도덕(moral)과 함께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도 불란서 고전어에서 따온 것으로 원래는 라틴어 moralis 와 mos(또는 mores)에서 유래된 것이다. moralis 는

14) 윌칸(Blanshard), 322 쪽.

도덕, 윤리, 선악, 교훈을 나타낼 때, *mos*는 예의, 태도, 행습, 습관, 풍속, 상례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다. 윤리(ethics)라는 말도 도덕과 매우 비슷한 어원에서 유래된 것이다. 윤리는 인격에 관한 학문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ethike*”에서 유래한 말인데 이 말이 습관을 의미하는 “*ethos*”가 변형된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하고 있다.¹⁵⁾ 선이란 분석이 불가능한 특이한 개념이며 정의하기가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주장되고 있듯이¹⁶⁾ 덕도 매우 분석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어원을 보면 그 차이가 다소 나타나기도 하지만 결국 선과 덕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철학에서 덕 및 도덕을 논하는 것은 옳은 것과 좋은 것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 윤리적인 기준에 일치하게 행동하는가를 따지는데 목적이 있기¹⁷⁾ 때문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좋은 것은 무엇인가?” 혹은 “무엇이 덕스러운 것이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은 매우 규범적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한 정의도 다양해질 수 밖에 없다. 선을 다루는 차원에서는 그 범위가 매우 추상적이지만 덕 및 도덕을 다루는 차원에서는 그 범위 및 문제의 성격이 다소 구체적이며 현실적이고 실제적임을 알 수 있다. 덕에 대한 여러 철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덕을 지식으로 보는 견해이다. 소크라테스는 덕은 곧 지식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지식은 선에 대한 지식을 가리킨다. 따라서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사람은 그 지식으로 옳은 것을 할 것이고 무지한 사람은 그른 일을 행할 것이다. 결국 덕은 지식의 결과이며 지식에 의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앎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 도덕적인 통찰이다. 그리스에서 덕의 어원인 “아레페”(ἀρετή)는 탁월한 것, 뛰어난 소질, 능력, 또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¹⁸⁾ 따라서 지식이 덕이라고 할 경우 지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다. 크세노폰의 글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온다.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유티데무스(Euthydemus)에게 “그대는 델피신전 한쪽 벽에 새겨진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았는가?”하고 물었다. 유티데무스는 그것을 보긴 했으나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안다는 것은 단지 자신의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다. 인류를 위한 봉사에 스스로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적합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을 행함으로써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그들이 모르는 것을 하지않음으로써 비난을 받지 않고 살 수 있고 또한 불행을 사전에 방지할

15)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1103.°

16) I.A. Richards, *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New York: Harcourt, Brace, 1926), 84쪽.

17) 잇금(Sahakian), 2쪽.

18) 선·덕·아레페에 관한 역사적 고찰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볼 것. Alasdair MacIntyre, *A Short History of Ethic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7), 5~109쪽.

수 있기 때문이다”¹⁹⁾고 말해 주었다. 지식은 도덕적인 통찰력으로 정의되는 덕이며 그것은 선한 행동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자신을 아는 지식은 매우 중요하다. 그는 덕이 지식이라면 덕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며 교육을 통해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지식은 유일한 배움의 체계이며 절제라든가 그 밖에 다양한 덕목들은 하나의 덕인 지식, 곧 지혜의 구성요소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하나의 실체 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덕은 무엇이 진정으로 선하고 유용하며 이익이 되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삶의 체계이자 도덕적으로 질서있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철학은 선의 법칙, 곧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유효한 법칙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것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그들 스스로의 힘을 과신하고 과오를 범하게 된다.²⁰⁾

둘째, 최고선을 덕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스토아철학자 에픽테투스(Epictetus)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최고선을 덕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덕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덕은 신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는 인간의 의지로서 실천적 지혜(숙고), 용기, 분별력(자기통제), 정의와 같은 기본덕목(cardinal virtues)을 통해 개인을 덕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스토아주의자들은 절대적인 정신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추구해왔다. 그들의 입장은 어떠한 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정신, 곧 불굴의 의지를 통해서 영혼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 평정을 얻는데 있었다. 그러한 정신적 의지는 바로 최고선을 향해 합리적으로 질서를 갖추려는 영혼의 움직임을 통해 성취된다. 따라서 그도 덕과 일치하는 생활을 강조한다. 정신적으로 균형을 잃지 않고 감정을 이성적으로 억제하며 합리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조화로운 생활이자 행복한 생활이다.²¹⁾ 그러므로 스토아주의자들은 인생의 영고 성취를 신에 의해 부과된 정신적인 수련과정이라 생각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안내자인 이성에 의존하면서 늘 자족하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며 평온을 찾는다. 이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힘이란 의지와 합리적인 관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뿐이다. 인간은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연의 섭리에 맡겨야 한다. 인간은 자연에 순응하여 살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최고선을 추구해야 한다.²²⁾ 이것이 바로 덕인 것이다. 에피큐르스 학파의 경우에도 최고선은 사려깊은 분별력과 통찰력이요 이것은 즐겁고 선한 생활을 창출하는 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신과같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행복이 우리의 의식내면에 자리를 잡고 덕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그때 덕은 평정으로 나타난다. 쾌적하고 단순하며 온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덕을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그들은 절제할 줄 아는 정신적인 쾌락을 육체적 만족 보다

19) Xenophon, *Memorabilia of Socrates*, 4권 2장 24~26절.

20) 윗글, 4권 2장 27절.

21) Epictetus, *Discourses*, 1권 2장, 4장, 그리고 18장볼 것.

22) 윗글, 1권 1장.

우월하게 평가하고 이러한 고상한 쾌락이나 정신적 가치를 의존할 때 현재의 불행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스토아 학파나 에피큐러스 학파는 똑같이 평정을 추구하면서 최고선을 덕으로 보았으나 전자는 이성적 의지를 기준으로 삼았고, 후자는 정신적 쾌락을 통해 만족을 추구했다는 차이가 있다. 그밖에 최고선은 신이며 최고의 덕은 신에 대한 사랑으로 본 어거스틴²³⁾도 있고, 도덕적 완성을 의무적인 것으로 간주한 칸트(I. Kant)도 있고, 도덕적 가치를 선, 고결함, 경협의 풍부성, 그리고 순결로 본 하르트만(Nicolai Hartmann)²⁴⁾등도 있다.

세째, 윤리(도덕)적인 덕보다 지적인 덕을 강조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적인 견해이다. 그는 덕을 윤리적인 덕(ethical virtue)과 지적인 덕(intellectual virtue)으로 구분하고 지적인 덕을 보다 강조하였다. 윤리적인 덕은 동물적 수준의 감각적 즐거움에 관계되거나 인간적 수준의 사회적인 즐거움에 관계되며 의지의 지배아래 놓이고 이성의 통제를 받는다. 영혼의 이성적 부분은 도덕적인 덕이 실현되도록 욕망을 통제한다. 유덕한 행위를 규칙적으로 반복시켜 덕에 습관을 붙게 한다. 습관적인 행동이 덕성을 지니는 것은 바로 그 행동이 이성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을 습관화된 중용(habitual moderation)이라 규정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중용(mean)은 부족한 악덕과 지나친 악덕 두 극단의 악덕 사이에서 올바른 이성의 명령에 따라 결정되는 중도적인 것을 말하며 이것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 기준이 다양하다. 결국 중용은 옳은 일을, 옳은 사람에게, 옳은 시간에, 옳은 방법으로, 옳은 목적을 위하여, 옳은 한도에서 행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중용을 정확하게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선의 방법 곧 덜 극단적인 것, 덜 악한 것을 택한다. 사실 중용을 지키다는 것은 드문 일이고, 칭찬할 만 하며, 숭고한 것이다.²⁵⁾ 그러나 이 덕은 매우 상대적이고 이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확정적이지 못하다. 결핍과 과

결핍의 악덕			중용의 덕			과잉의 악덕		
1. 비		겁	용		기	무		도
2. 무	감	각	절		제	방		탕
3. 인		색	관		후	낭		비
4. 비		굴	금		지	오		만
5. 야	망	의 결	건	전	한	과	도	한
6. 무		관 심	공		야	파		망
7. 자	기	비 하	진		손	성		름
8. 바	보	스 럽	진	실	됨	과		시
9. 통		명	재		치	광	대	질(익살)
10. 파	렘	치	친		절	아		침
11. 악		의	결		양	수	춤	음
12. 불		의	의		분	질		투
			정		의	불		의

23) St. Augustine, *Concerning the Nature of Good*, in Vol. 1, *Basic Writings of Saint Augustine*, W.J. Oates (역음), (New York: Random House, 1948)

인의 두 악덕 사이의 중용이 가진 덕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윤리적인 덕보다 우월한 것은 지적인 덕이다. 지적인 덕은 인생의 과학적인 또는 철학적인 영역에 관계되는 것으로 과학, 예술, 철학, 그리고 실천적 지성(지혜)을 통하여 보여 주듯이 지적인 성질의 것이다. 지적인 덕은 지성의 통제를 받는다.

네째, 자연적인 덕(natural virtues)보다 신학적인 덕(theological virtues)을 강조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연적인 덕은 최선의 것을 달성하려는 완전한 사물의 성향(disposition)이며 습관이라는 말로 사용된다. 즉 이 덕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활동적인 습관이며 인간을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완성시키며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그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든다. 그에 따르면 이는 마음의 좋은 습관이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 바르게 살 뿐 아니라 아무도 그것을 악용할 수 없다.²⁴⁾ 그는 이 자연적인 덕을 지적인 덕(intellectual virtue)과 도덕적인 덕(moral virtue)으로 양분하였다. 지적인 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성(understanding)과 과학적인 사고, 지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과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이론적인 지성을 완성시키는 능력이다. 오성은 원리를 분별하는 습관이고, 과학적 사고는 지성으로 하여금 결론을 연역할 수 있도록 만들며, 지혜(wisdom)는 궁극적인 원인을 생각하고 모든 진리를 판단하며 정리한다. 그러므로 지적인 덕에서는 지혜가 최상의 덕에 해당한다. 도덕적인 덕은 어떤 통제원리와 척도에 잡히도록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여 올바른 생활과 함께 선에 이르도록 한다. 악은 이 기준에 못미치거나 지나친 불균형상태이다. 그는 지혜(prudence), 정의, 절제, 용기등 이른바 플라토의 네가지 기본덕목을 도덕적 덕목으로 열거했다. 절제와 용기는 이성이 감성(passions)을 통제할 때 이뤄지는 덕이며, 지혜와 정의는 이성이 감정이외에 그 자체(지혜)와 다른 행위(정의)를 통제함으로써 이뤄진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인 덕 가운데 정의가 최상의 덕에 해당한다.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의 비교에 있어서 전자는 이성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그것의 지배를 받는 도덕적인 덕보다 우월하다. 그러나 모든 유덕한 행위는 선이라는 최종목표, 곧 행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목표는 이성의 규칙에 부합되는 행동을 함으로 달성된다. 인간이 지구상에 있는한 이러한 부분적인 행복, 감정적인 선, 그리고 불완전한 미로 만족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신학적인 덕은 자연적인 덕과 달리 예외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어떤 수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의 도움을 받아 초자연적 행복에 이르도록 한다. 초자연적인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덕의 기준이나 척도는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 그 자체에 있다. 신학적인 덕에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 있다. 믿음은 신의 진리에 따른 규칙으로 믿음의 대상에게로 길을 인도하고, 소망은 신의 전능함과 사랑에 따른 규칙으로 우리의 의지가 이 목표와 영적인 통일을 이루도록 변형시키며, 사랑은 신의 선에 따른 규칙으로 우리

24) Nicolai Hartmann, *Ethics*(New York: Macmillan, 1932), 179~207 쪽.

25)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2,9.

26)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Q.55, Art. 4.

의 의지가 이 목표를 지향하도록 인도한다. 신학적인 덕은 지성에 초자연적 원리를 제공하면서 신의 빛을 비추어줄 뿐 아니라 이같은 방법을 통해서 자연적인 목표인 선, 곧 선을 지향하게 된다.

덕이 수단인가 목적인가 하는 점은 자아 실현 문제와 연관시켜 볼 때 중요성을 띤다. “우리는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보면 덕이 그 자체로서 하나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수단과 같은 의미를 가져다 준다. 그때 덕은 다치 쾌락, 건강, 부와 같은 것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적 선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선을 위한 선인가하는 물음이 제기 될 수 있다. 브래들리는 도덕이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목적이며 그 목적은 자아실현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사회속에서 현재의 자신을 넘어서려는 의지, 곧 자아실현이 목적인 선의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선의지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요 의무이므로 이것의 실현을 말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자아실현은 인간의 직분이자 의무인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이 이러한 직분과 의무를 포기할 때 인간은 무가치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나의 직분과 의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며 그보다 더 숭고하고 진실된 아름다움은 없다”²⁷⁾고 말한다.

또한 덕은 끝없는 과정이며 아울러 자아실현도 끊임없는 과정임을 일깨워 준다. 이것은 한 마디로 도덕의 자기 모순이기도 하다. 이상적 자아는 의지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현실적 자아는 이상을 향해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도 항상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이 완전히 달성될 경우 모든 의무는 종결되어 더 이상 추구해야 할 도덕적 목표가 필요 없게 되며 결국 자아실현을 위한 도덕 그 자체의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덕은 계속 우리들에게 이상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끝없는 과정으로 이어준다. 따라서 자아실현도 끝이 없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3. 자아 실현은 행복의 실현이다.

행복의 실현이 자아실현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많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행복의 상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행복의 실현을 강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부터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할 도덕적인 목적을 표시하는데 “에우다이모니아”(εὐδαιμονία)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의 윤리학을 가리켜 “슈디머니즘”(eudaemonism), 곧 행복주의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인간이 달성해야할 마음의 상태, 곧 덕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으로서 선을 추구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그는 행복이란 가장 훌륭하고 고상한 것이며, 이 행복의 상태는 이성과 절제, 그리고

27) 윌슨(Bradley), 201 쪽.

잠재력의 실현을 통한 건전한 생활에서 나온 것임을 말하고 있다.²⁸⁾ 인간이 달성해야 할 목적은 선의 실현에 있고 이 최고 목적인 선은 행복으로 귀착될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행복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행복은 모든 행동의 목표이며 최종적이고 자기 충족적인 성격을 띤다.²⁹⁾ 그에게 있어서 지적인 덕은 최상의 행복을 가져온다. 이것은 모든 행복이 똑같은 가치를 지니거나 다같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가리켜 준다. 그에 따르면 행복의 덕에도 단계가 있다. 즉 낮은 수준의 물리적 본성을 실현함으로써 얻어지는 열등양태에서, 동물적 성향을 충족시켜 얻어지는 중간 양태를 거쳐, 결국 우리의 최고의 본성, 곧 우리의 이성적이고 특이한 인간적 본성을 만개시킴으로써 가장 숭고한 형태의 행복의 정점에 이르는 상향적 등급이 있다. 덕이 비록 행복을 산출한 다해도 모든 덕이 다 지적인 덕이라 볼 수 없으며 어떤 덕은 도덕적인 덕으로 그 실현을 위해 실천의 의지가 작용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선택한 행동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도덕적인 선택은 자발적인 것이다. 선악의 선택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결정에 달린 것이다.³⁰⁾ 따라서 행복의 양태도 다를 수 밖에 없다. 로스(W.D. Ross)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생활이란 이미 달성된 진리에 관하여 사색하는 생활(contemplative life)³¹⁾이며 행복은 인간의 탁월한 자질을 충분히 개발하고 창조적인 노력과 함께 이성적 본질을 지니는 것이다. 그의 「정치학」에 따르면 사색하는 생활에는 문학, 음악, 조형예술 및 회화에 관한 미적 감상까지 포함되어 있으며,³²⁾ 그의 「에우데미아 윤리」에 따르면 신에 대한 풍부한 사색까지 포함하는 삶³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장 숭고한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인간의 가장 높은 수준의 본성인 이성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저급한 동물은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감각적인 쾌락을 얻을 때 행복을 달성하지만 인간은 탁월한 자질을 실현함으로써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을 얻는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완전한 덕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³⁴⁾이다. 일상적 활동은 일상적 행복을 산출할 뿐이지만 완벽한 활동은 그만큼 완벽한 행복을 산출한다.

플라토도 행복을 말한다. 그에게 있어서도 행복은 선과 아름다운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간의 목적은 자신을 완성시켜 가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것이며 그 가운데서 선과 진리와 아름다움은 하나로 결합된다.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선이며 행복이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도덕적인 기초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또다른 행복론으로는 아퀴나스의 주장을 들 수 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인간과 사물을 포함한 모든 자연이 선이라는 어떤 목표를 지향하도록 예정되어 있으며 모든 사물

28)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1,10.

29) 윗글, 1,5.

30) 윗글, 3,7.

31) William D. Ross, *Aristotle*(New York: Barnes & Noble, 1949), 234 쪽.

32) A.E. Taylor, *Aristotle*(New York: Dover, 1955), 99 쪽.

33) Aristotle, *Ethica Eudemia*, 1249.^b

34) Aristotle, *Nicomachean Ethics*, 1,13.

이 그와같은 목적을 지향하는 것은 그것들이 신을 닮으려하고, 신적인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성향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최고선은 신의 영상속에서 얻는 행복임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의 영혼이나 모든 지적인 실체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신을 아는데 있으므로 진정한 행복은 감각적인 선, 예술, 또는 도덕적인 덕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신에 대한 관조를 통해서 얻어진다. 인간은 신의 진리에 도달하여 영혼의 평화를 얻을 때 까지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행복론은 신학적인 것에 속한다.

그밖에 공리주의자인 시즈윅(Henry Sidgwick)은 궁극적인 선(ultimate good), 곧 최고선은 인간의 공통된 목표인 행복의 증진에 있다고 보았다. 옳은 행위는 궁극적인 선인 행복에 의해 결정되며 덕은 이 궁극적인 선에 따라 정의되어야 한다.³⁵⁾

결국 자아실현으로서의 행복은 선의 실현이며 인간은 고도의 행복을 산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과 함께 선의지를 얼마만큼 실천해 나가느냐에 따라 이 행복의 수준이 달라질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4. 자아 실현은 사회적인 것이다.

홉스와 같은 이기주의 철학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아실현을 주장하는 상당 수의 철학자들은 자아실현이 사회적인 것일 뿐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것임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플라토는 인간의 사회성을 강조하는 글에서 “인간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지혜롭고 용감하며 절제할 줄 알고 정의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의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으로 인간 상호간의 관계속에서, 사회속에서 그리고 국가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인 덕임을 내세웠다. 사회의 각 구성원이 적재적소에서 타고난 자질에 부합되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즉 각 개인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할 때 저마다 특수한 덕을 실현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국가의 통치자로서 문화에 기여하며, 용기를 가진 사람은 군인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시민들은 자기절제를 통하여 육체적인 욕망을 억제하고 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따름으로서 정의가 실현된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정의는 진정한 자아와 타인을 염려할 줄 아는 우리의 내면성과 관계되는 것이며 자신의 내면적 생활에 질서를 부여하고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법칙에 따라 평화롭게 생활하는 것이다.³⁶⁾ 결국 각 개인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불의와 혼란과 불행이 초래된다. 따라서 자신의 내면에 남을 해치고 서로 다투는 요소들을 지니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도덕성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성격을 띠

35) Henry Sidgwick, *The Methods of Ethics*(London: Macmillan, 1901), 3권.

36) Plato, *Philebus*, 6. 433, 4. 427~444.

므로 따지고 보면 사회안에서만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사회를 떠나 도덕적인 것이 실현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의 자아실현관이 사회를 통하여 실천적으로 구현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사회적 자아를 말한 그린의 경우에도 선은 개인적인 것이라기 보다 사회적인 것이다. 인간 정신이 개인들 속에서 그리고 개인들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자아실현이 사회안에서 그리고 사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³⁷⁾ 인간의 능력이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생활을 통해 나타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의 생활은 실제적으로 의미를 잃게 된다. 따라서 인간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이 자기의 이상인 자아를 완전히 실현하는 생활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개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하면서 살아가는 개인으로 행동해야 한다. 사람이 예술이나 과학을 통하여 자기의 능력을 발휘한다 해도 도덕적인 덕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적인 덕을 실현하려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다른 자각적인 개인들과 더불어 인간사회의 어떤 형식에 관심을 갖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며 참된 것을 알고 고통과 두려움을 참으며, 그리고 동물적 유혹을 물리치면서, 즉 사회생활속에서 자기를 구현해야 한다.³⁸⁾ 이와같이 자아실현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선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의지가 요청되며 이러한 수준의 선은 바로 숭고한 행복이 약속되는 자아실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이 개인의 내면 의식을 통해서 자아실현할 수 있다는 것과 사회를 통해서 자아실현이 가능하다는 것 두가지 모두는 “똑같이 진실”³⁹⁾이다. 인간의 완성이라는 궁극적인 선은 합리적으로 바람직한 의식의 상태이다. 합리적인 사람은 도덕적인 목적을 추구하며 그 추구에 있어서 자기의 자아실현과 다른 사람의 자아실현을 아울러 고려함으로써 인간을 완성케 한다. 따라서 자아실현이란 최고선과 연관되고 즐거운 것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쾌락의 추구가 아니라 바람직한, 그리고 자각이 있는 인간의 실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각적인 실현을 통해서 바람직한 사회제도가 점진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며 아울러 사회가 그러한 쪽으로 개혁될 수 있음을 그는 보여주고 있다.

브레들리에 따르면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이다. 인간은 사회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적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를 떠난 개인은 이론적인 환상에 불과하다.”⁴⁰⁾ 도덕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사회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면에서 “나의 직분과 의무”는 좋은 것이며 숭고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것이다.⁴¹⁾ 자아실현은 사회라는 도덕적 유기체안에서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의 직분과 의무, 곧 사회적인 유기체안에서 하

37) 윌슨(Green, 1883), 218 쪽.

38) 윌슨, 195~196 쪽.

39) 윌슨, 219 쪽.

40) 윌슨(Bradley), 174 쪽.

41) 윌슨, 201 쪽.

나의 기관으로서 기능을 발견할 경우 우리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⁴²⁾ 이러한 구체적인 작업을 통해서 인간은 전체로서의 자아실현과 전체를 이루는 개인들의 자아실현을 동시에 자각하는 도덕적 유기체가 된다.

블랜샤드의 자아실현은 이타주의적이다. 그는 선이란 사람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전제하고 일정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희생하는 도덕적 의무를 개인에게 부과하였다. 이것은 최대선을 가져오도록 옳은 행위를 설계하라는 명령과도 같다. 그 행위가운데는 다른 사람의 잠재능력을 성취하도록 노력하라는 책무까지도 포함한다.⁴³⁾ 왜냐하면 선을 산출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선은 재산이나 지위에 따라 사람을 차별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잠재능력을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성취를 위해 노력한다든가,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목표, 나의 만족과 성취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모르 자유와 민주성을 모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뜻은 이 잠재능력의 실현이 결코 이기주의적인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타주의적 철학은 쉘리크(Moritz Schlick)에게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는 친절(kindness)이라는 이타주의가 결국 행복을 낳는다는 입장에서 서 있다.⁴⁴⁾ 그는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의 동정심(sympathy)의 철학,⁴⁵⁾ 곧 이타주의를 지지하고 타인의 일을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는 도덕적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것은 이기주의적 욕망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이타주의적 욕망이며 이타주의적 성향인 친절은 행복으로 이끌고 그것은 덕스런 행위를 낳는 성향과 일치한다.⁴⁶⁾ 즉 이타주의적 성향과 도덕적 행위는 같은 결과를 낳는다. 전자는 후자로 이끌어 주고 결국 행복으로 이끈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가치는 적절한 심리적 성향, 곧 이타주의라는 도덕적 성향을 필요로 한다. 이타주의의 본질적 특성은 다른 사람의 요구를 우호적으로 이해하고 그 바라는 바가 성취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 말하자면 타인에 대한 이해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이해심은 이기주의적 충동을 억누를 수 있다. 인간은 그러한 행위를 함께 나누기 때문에 고상하고 선하게 되는 것이다. 선한 인간은 가장 가치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며 가능한 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도덕성을 쉽게 수행한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뿐 아니라 그의 본성과 어울린다. 따라서 인간의 자기 완성은 즐거운 수행이 된다.⁴⁷⁾

자아 실현의 사회성 및 이타주의성은 칸트의 경우 의무에 해당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두

42) 윗글, 163 쪽.

43) 윗글(Blanshard), 321~322 쪽.

44) Moritz Schlick, *Problems of Ethics*(New York: Prentice-Hall, 1939).

45) Arthur Schopenhauer, *The World as Will and Idea*(London: K.Paul, Trench, Trüber, 1896), 4권, 38, 65 장; *The Basis of Morality*(London: Swan Sonnenschein, 1903), 264 쪽.

46) 윗글(Schlick), 192~197 쪽.

47) 윗글, 205 쪽.

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자기의 도덕적 완성을 최대한도로 증진시키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이다. 사람은 자신을 도덕적으로 완성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킬 의무를 지니고 있다.⁴⁸⁾

공리주의 측면에서 보아도 그들의 최고선, 곧 인간의 공통된 목표는 행복의 증진에 있다. 시즈위크에 따르면 옳은 행위는 어떤 개인이 정당하게 향유할 수 있는 사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이성의 명령이 있을 때 가끔은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사회전체의 행복증진에 있다. 따라서 각 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보다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선이나 행복을 희생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수 있다.⁴⁹⁾

“도덕은 사회적이다”⁵⁰⁾라는 듀이(John Dewey)의 말은 도덕이 개인적인 문제라기 보다 사회적인 관심사임을 나타내고 있다. 정적이고 정체적인 것을 거부한 듀이는 도덕개념을 통해서도 성장과 개선과 진보를 논했다. 그에게 있어서 도덕적 성장은 최고선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사회를 통해서 구현된다. 그러나 그는 변함이 없고 정체적이며 어떤 틀에 집어넣는 절대적인 것보다 진보하고 발전하는 도덕을 추구한다.⁵¹⁾ 그 이유는 인간이란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에 맞추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도덕학문(moral science)은 바로 이러한 흐름에 발을 맞춘 학문을 가리킨다. 그의 주장은 전진적인 삶 속에서 낙관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사회개량주의(meliorism)로 나타난다.

이러한 여러가지 견해를 통해서 볼 때 자아실현은 사회성을 띠고 있으며 자기의 완성뿐 아니라 타인의 완성과 행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자아실현은 잠재능력의 실현이다.

자아실현이 잠재능력의 실현이라는 점은 앞서의 논제들에서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다시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을 한 단원으로서 따로 설정한 것은 이것이 주는 의미가 크고 잠재능력의 발휘가 자아 실현의 기본적인 개념이 될 뿐 아니라 종국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밝히고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무엇보다 잠재능력의 실현은 이미 언급한 선, 덕, 그리고 행복의 실현뿐 아니라 사회성과 깊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 자체가 좋은 삶의 형태로 인정받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최고선과 도덕적 이상이 타고난 잠재능력과 연관되며 그것의 실현은 바로 그가 추구하는 선을 향해

48) Immanuel Kant, *Kant's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and Other Works on the Theory of Ethics*, T.K. Abbott (옮김), (London: Longmans, Green, & Co., 1883), 221쪽.

49) 헛갈(Sidgwick), 14장.

50) John Dewey, *Human Nature and Conduct* (New York: Henry Holt, 1922), 316쪽.

51) John Dewey, *Reconstruction in Philosophy*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50), 141쪽.

자기 능력을 최고도로 발현토록 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비록 선을 향해 나아간다 할지라도 플라톤의 생각처럼 우리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완전하게 실현시킬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를 비판하고 주저 앉는다면 염세주의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잠재능력의 실현은 이러한 비판주의를 극복하는 좋은 방편이 된다. 우리는 가능한 최대의 선을 실현하려고 노력함을 통해서 인간의 주체됨과 능동성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따지고 보면 이러한 노력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큰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잠재능력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인간을 능동적으로 본다는 기본적인 사고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잠재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선생활의 본질, 깊이 따지자면 인간의 본질까지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매우 깊다. 플라토가 참된 실재에 접근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순수한 자아를 높이 평가하는 것도 이것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성인 인간의 본질이 과학, 음악, 미술, 문학, 철학, 그리고 제반 창조적 영역에까지 발현될 것을 바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도 인간의 잠재능력 실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간의 잠재능력이 개인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발휘의 수준이나 판단 기준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의 해안은 현재에 이르러서도 매우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그가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높이 평가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잠재능력의 실현과 깊게 연관된다. 인간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책임있는 선택이어야 한다. 그가 노예적인 인간의 행위보다 주인(master)의 입장에 선 인간의 행동, 곧 주체적인 행동을 높이 평가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린의 경우에 있어서도 잠재능력의 실현은 인간의 영혼을 최대한으로, 그리고 최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잠재능력은 인간 영혼의 내적인 자질을 실현시키는 것이며 인간은 그 실현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다. 인간이 의식의 주체가 되어 잠재능력의 실현가능성을 자각하고 실현시키는 것은 바로 이해하고자 하고 바라는 인간의 자유로운 인식과 그 능력에 있다. 인식하는 의식의 주체는 바로 지적 경험의 주체인 인간의 능력이 바로 인간안에 있음을 스스로 아는 것이다. 인간은 이 잠재능력을 인식하고 실현시킴으로서 자아 의식을 자신 뿐 아니라 도덕, 사회, 그리고 신과 연결시키고 자기속에 질서를 부여한다. 자아는 의식이 욕구하는 이상적인 목표를 현실속에서 실제화 하려고 노력한다. 자아는 언제나 자유로운 의지의 작용이며 의식적인 주체는 모든 의지를 통하여 선의 독특한 본질을 실현시킴으로서 만족한다.⁵²⁾

자아실현이 잠재능력의 실현이라고 함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의식이 없다면 인간은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파일로트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을 것이며 기계적인 인간, 끊임없이 소외속에 있어야 하는 인간, 로봇트로서의 인간상을 안고 고뇌에 찬 삶을 영위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로 인간의 잠재능력 실현을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잠재능력의 실현은 바로

52) 그린(Green, 1893), 115 쪽.

인간이 각자 가지고 태어난 능력을 주어진 환경속에서 최선을 다해 발휘시킴으로써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자기와 연관된 세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잠재능력의 실현을 선의지의 실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 능력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간의 이성이 강조되며 동물적인 본능이나 쾌락을 낮게 평가하는 것도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V. 철학적 논제들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점들

지금까지 전개된 자아실현의 철학적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조직성원의 자아실현을 고찰함에 있어서 무엇인가 유익한 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유익한 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자아실현은 조직성원들이 자기의 잠재능력을 가능한 최대로 발휘함으로써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철학을 심어준다는 점이다. 더우기 최고선 및 도덕적 이상을 목표로 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을 보다 나은 자리에 옮겨놓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언제나 현재 상태를 보다 낮게 개선하고 개발함에 있어서 성원 스스로의 자각과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자아실현은 목적이 있고 질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아실현은 인간의 능동성과 자주성을 인정하고 인간을 낙관한다는 점이다. 자아실현은 인간이 선하게 되려는 의지, 자각적인 주체의 노력, 내면적인 의식의 변화, 행복의 추구, 창조성, 그리고 탁월성을 인정한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인간이 의식의 주체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의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생각을 뛰어 넘는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삶이란 욕구와 의지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이며 인간이 만족을 열망하는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욕망상태의 계속인 한 만족의 순간조차 덧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살만한 가치가 없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조차 죄악이요 실수이다.⁵³⁾ 많은 조직이론가들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간의 상태를 비관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주고자 한다. 이것은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인정한대서 나타난다.

셋째, 자아실현은 도덕과 연관된다는 점이다.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자아실현이 선의 실현임이 주장되고 있으며 이 선은 덕과 연관되고 행복과도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선의 실현이 인간의 잠재능력을 최대화하는 것이며 매우 생산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53) Arthur Schopenhauer, "The Vanity of Existence," *Studies in Pessimism: The Essays of Arthur Schopenhauer* (New York: Wiley, n.d.), 23쪽.

그러나 근본적인 면을 살펴 볼때 인간의 잠재능력실현이 개인의 단순한 동물적 욕구 충족이나 쾌락의 극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성원의 자아실현이 윤리와 연관됨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기업윤리와 깊게 접촉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런 점에서 도덕과 연관된 자아실현은 현대 조직에 매우 유익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슬로우가 배타욕구에 관한 논리전개에서 선을 말하기도 하지만 존재가치의 실현에 치중하기 때문에 도덕철학의 강조가 비교적 약하다. 조직 성원의 도덕성 및 기업의 윤리의식이 강조되어야 할 현 시점에서 자아실현이 선의 실현이자 덕의 실현이요 이 선과 덕이 연관된 행복의 실현임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네째, 자아실현은 사회적 성격을 띠었다는 점이다. 자아실현이 사회적 성격을 띠었다는 것은 플라톤을 비롯하여 아리스토텔레스, 브레들리, 블렌샤드, 윌리크, 듀이등 여러 학자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개인은 사회적 존재이자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도덕을 실현할 의무가 있다. 도덕의 실현이 자아실현의 속성과 연관된다고 볼 때 도덕적 책임 이행은 사회적 환경과 이어지고 개인의 도덕적 성취는 사회적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자아실현이 비록 개인의 자기성취의 도덕적 완성을 의미한다해도 타자와 연관되어 판단되어지고 그 실현의 결과는 공동의 가치를 유지하게 된다. 이것은 흄(David Hume)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도덕적 가치의 사회적 승인으로 나타남을 말한다. 한 사람의 도덕적 성취가 집단에 의해 애호를 받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인간애가 모든 사람의 보편적 인간애⁵⁴⁾라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감정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자아실현이 타자와의 관계속에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인관계의 개선에 있어서 조직 성원의 태도 변화에 도움을 준다.

다섯째, 자아실현은 이타성을 띠는다는 점이다. 흄에 따르면 이기적인 감정은 집단에 의해 공유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동윤리를 확립하는데 기초가 될 수 없다. 부도덕함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이기 보다는 개인적인 것이며 전횡적이고 거만한 개인의 이기적 감정에서 생겨나 타인으로부터 혐오와 비난의 대상이 된다.⁵⁵⁾ 자아실현은 자기 자신의 발전을 다른 사람과의 조화로운 관계속에서 성취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전 가능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속에서 발현되어야 한다. 인간에게 동기를 유발시키는 다양한 도덕적 자극을 논한 마티노(James Martineau)는 의심이 가장 낮은 것이며 존경에 대한 감정이 가장 높다고 보았다.⁵⁶⁾

이타주의는 자기의 성취가 타인의 성취로 연결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도 자기의 행복으로 알아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잠재능력을 귀하게 보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인도적”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인도를 나타내는 “후마니타스”(humanitas)는 원래 섬세함 및 명세라는 뜻을 가졌다가 후에 인간의 고도의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 개발과 교양을 나타낼 때 사용

54) David Hume, *An Essay Concerning the Principles of Morals* (LaSalle, Ill.: Open Court, 1953), 111 쪽.

55) 윗글, 112 쪽.

56) James Martineau, *Types of Ethical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1891), 1권 6장 13절.

최대의 선에 못지 않는 선을 추구하고 그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 이 만족은 성취에 따르는 행복한 느낌이자 희열이며 심미적인 성격마저 띤다. 마슬로우의 경우 이것은 대양경험이나 극상경험에 해당된다. 이러한 만족은 주체적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인간의 의식 내면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이러한 만족은 육체적 쾌락보다 수준이 높은 것이며 이것이 조직 성원에게 동기부여의 힘이 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상의 것을 분석하여 살펴볼 때 첫번째에서 다섯번째까지는 자아실현의 속성과 연관된 것이며, 여섯번째와 일곱번째는 자아실현의 과정에서 실제 나타나야 할 것에 관해서, 그리고 여덟번째는 자아실현 결과 얻을 수 있는 효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아실현이 질서있는 삶을 부여해 준다는가, 직분이행의 의무적 성격을 지녔다는가 신적인 의지의 발현이라든가, 심미성을 띤다는가, 덕성을 개발케한다는가, 현실과 이상의 조화라든가 하는 여러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VI. 맺는 말

지금까지 자아실현에 대한 여러가지 철학적 논제들을 속성별로 검토하고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몇가지 개념들을 추출해 보았다.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여러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고 설명함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인간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려한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조직성원의 자아실현을 위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는 심리학자, 사회학자, 조직이론가 등 여러 사회과학자들의 공통된 관심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과학주의를 내세워 철학자들의 이론적 전개가 매우 추상적이고 난해하다고 생각하여 도외시 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글은 자아실현이 철학의 주요관점 가운데 하나였음을 밝히고 앞서 언급한 여러 속성들이 자아실현에 대한 심리학적, 사회학적 이론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물론 자아실현에 대한 철학적 논제들에 어떤 한계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 하나를 뜯어 가며 비판을 가할 수 있고 철학자 개개인의 주장을 놓고 비판할 수도 있다. 자아실현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기계로 보려는 생각과 반대의 입장에서 있는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이 글은 철학에서 자아실현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떤 논제들이 있고, 어떤 점들을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에 한정시켰으므로 각 논제나 학자 개개인에 대한 비판은 제외시켰다.

앞으로 더욱 학제적 시도가 있게 되면 철학은 조직 연구에 있어서 그 기초를 확고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철학은 바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학문 영역이자 우리의 사고를 다양하게 해주고 문제해결의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